

남녀 고등학생이 인식한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수업의 효과

Effects of Practical Problem-Based Home Economics Instruction Perceived by Both Female and Male High School Students

주엽고등학교
교사 윤복순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가정교육과
전임강사 채정현

Chuyup High School
Teacher : Bok-Soon Yoon
Dept.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Full Time Lecturer : Jung-Hyun Cha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a practical problem-based instruction(PPBHEI) perceived by female and male high school students. One Group post-test only design was used in this quasi-experimental study.

The experimental group of the study was 101(67 male and 34 female) second grade students of a high school in Kyung Kee Area. The Practical Problem-Based Home Economics Instruction had been conducted to the group during the 14th weeks of 1997 spring semester.

Post-test including the two parts was conducted at the end of the semester. The instrument of the study was developed and used, based on the previous literature after testing validity and reliability by the researcher.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open-ended questions.

The data of this study were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both female and male respondents indicated PPBHEI helped to improve their friendships(93.1%), expression skills(69.3%), their thinking ability(82.1%), and problem solving skills(76.2%); 2) both female and male respondents indicated that problems of PPBHEI were that a few students didn't like joining the class and classroom space was too small; and 3) half of students(52.3%) perceived the Practical Problem-Based Home Economics Instruction related to student achievemen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6차 교육과정은 중학교에서는 1995년부터, 고등학교에서는 199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중학교 6차 교육 과정에서는 남녀 구별없이 가정교과를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6차 교육 과정 교과 중 남학생, 여학생의 교과목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과목이 있다. 바로 실업·가정교과이다. 실업·가정교과란 기술·가정·농업·공업·상업·수산업·가사·정보산업·진로직업의 과목을 말한다. 이 중에서 각 고등학교의 특성에 맞게 두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주로 남자고등학교에서는 '기술'과 '상업'이나 '공업' '정보산업'을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예외없이 '가정'과 '가사'를 선택하고 있다. 물론, 4차 교육 과정 개정부터는 공식적으로 남녀 구분의 의무가 없어졌지만 5차 교육과정 개정, 6차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도 고등학교에서 실업·가정 교과를 선택하는 양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시안이 나와 있는 7차 교육과정에 가정교과가 '실업영역'으로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 교과는 타교과들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어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시간 배당이 축소되어 왔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가정' 과목은 여학생에게만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근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가정과목 수업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없어서는 안되는 과목이라는 인식을 부여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기훈(1989)에 의하면 가정과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가 가정과에 배당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정과수업이 교과서에 의존한 주입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는 많은 거리가 생기게 된다. 이는 가정과 교육 과정이 가정학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론과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 개발되고, 교수-학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위수의 부족과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발표력을 길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의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교사 중심 수업은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획득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발표하며 서로의 친밀감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부(1995:95)도 오늘날의 가정학의 주된 관심은 기술적 차원을 넘어서, 학습자 중심으로 가족의 행동을 도덕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실천적 문제란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인간의 변함없는 욕구인 항존적인 문제로서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도덕적 사고에 기초한 행동을 말한다. 실천적 문제는 구조화되지 않았으며 여러가지 대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며, 가정과 가족에 관련되어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의미한다.

실천적 문제 중심의 수업은 문제정의, 정보수집,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발견, 의사결정, 행동, 행동에 대한 숙고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며 주로 협동학습법을 사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사가 미리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계획하여 소모둠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여 토론과 발표를 하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스스로 깨달아 행동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수업방식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수업보조자료를 개발하며 토론할 질문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한다.

실천적 문제는 학생들이 스스로가 문제를 깨닫고 비판하여 해결 방법을 알고 행동을 변화시켰을 때 비로소 해결된다. 따라서 교사는 주입식으로 내용을 전하는 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수업의 내용을 인식하고 정보를 파악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기회를 갖는 학생 중심 수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서로가 느끼고 인식한 바를 공유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논

리적인 사고력, 발표력, 문제해결력을 기르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나누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가 향상된다(Laster, 1987).

한편 1995년 5월 31일 교육 개혁안에서 교육부는 학생들의 개성, 자율성, 인성을 증시하는 열린교육을 강조하였다. 즉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실천적 문제 중심의 가정과 수업은 교육부의 이러한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논리적 사고를 하고, 문제해결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가운데 개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며, 협동적으로 학습하므로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나누어 인성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에 주로 쓰이는 협동학습법에 대한 효과를 알아본 연구는 다양하다. 연구결과 협동학습법은 여러 면에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예컨대, 협동학습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비판적사고, 상호관계, 자존감, 남의 입장에 대한 사려, 과목에 대한 태도를 높여주었다(Johnson과 Johnson, 1989). 하지만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에 대한 효과를 알아본 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단지 1980년대부터 몇몇 연구자들(Manifold, 1984; Edersheim, 1988; Martin, 1988; Jenkins-Vulgarnore, 1991)에 의해서 실천적 문제 중심의 수업을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의사결정 수준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가 있을 뿐이다. 위의 연구들의 결과 모두에서 실천적 문제 중심의 수업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의사결정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우리 나라에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 도입여부(채정현, 1996),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의 목표에 대한 요구조사(채정현, 1996; 유하립, 1996) 그리고 실천적 문제 중심의 교육과정(유지연, 1996)과 학습지도안 개발(도난희, 1997)에 그치고 있다. 즉, 실천적 문제 중심의 가정과 수업이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실행되어져서 학생들이 인식한 이 교수방법의 효과(친밀감, 발표력, 논

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학업 성취도의 향상)와 이 수업의 문제점,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어떠한지를 조사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아무리 훌륭한 수업방법이 개발되더라도 학생들에게 실제로 행하여져서 학생들이 수업방법이 그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론상의 수업이지 현실적으로 장려할만한 수업이 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실행하여 학생들이 이 수업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1) 남녀 고등학생에게 특히 남학생에게 가정교육을 한 다음 나온 결과라는 점과, (2)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학습지도안 개발 정도로 연구되어진, 가정과 성격에 맞는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실행했다는 점에 있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급우간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남녀고등학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발표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남녀고등학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논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데 있어 남녀고등학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의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남녀고등학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5.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있어 남녀고등학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6. 남녀고등학생들은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의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인식하는가?
- 연구문제 7.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에 대한 남녀

고등학생들의 일반적인 견해 및 자체 평가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은 가정학을 실천적 비판 과학으로 인정하는 실천적 문제에 근거한 교육과정 모형을 교실내에서 시행하기에 적합한 교육방법이다. 이 모형은 1980년대 이후 주로 사용되고 있는 모형으로 해방적 행동에 중점을 둔다. 가정학의 목적은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대해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으며, 교육의 사명은 인습을 벗어나서 비판적 사고를 하게 하는 과정을 발견하는데 있다고 가정(假定)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교육내용은 모든 세대를 거쳐 공통적이고 계속 발생하는 문제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선정한다. 교육과정이 실천적 문제에 따라 결정되는 이 모형은 사회 조건과 광범위한 인간 목표와 관련된 상황 분석에 초점을 두고 교수방법이 결정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나오고 배열되며, 학습 경험은 실천적 문제와 관련하여 무슨 행동을

을 취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학습자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유지연, 1996). 즉,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란 실천적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업 방법을 말한다. 실천적 문제란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인간의 변함없는 욕구인 항존적인 문제로서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사고에 기초한 행동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실천적 문제는 도덕적 타당성 및 정당성을 고려하여 옳은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해결된다. 실천적 문제는 주로 가정과 가족에 관련되어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이며 흔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 실천적 문제는 구조화되지 않았으며 여러가지 대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므로 정해진 답이 없다(Laster, 1982).

Laster(1982)는 실천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을 <표 1>과 같이 네 단계로 제시하였다.

실천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둘째 단계인 실천적 추론이다.

Brown과 Paolucci(1979)는 실천적 추론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문제 내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이상 상태나 목표를 설정한다. 둘째, 실천적인 문제들과 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들의 여러 국면에 대한 정

<표 1> 실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

1. 문제를 명확히 한다.	-문제를 정의한다. -실천적인 문제와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구별한다.
2. 실천적 추론을 한다.	-목표를 형성한다. -문제에 얽힌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석한다. -대안적인 해결, 전략,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을 세운다. -각 대안에 대하여 행해질 행동의 결과 즉, 자신과 타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여러 요인에 대해 고려할 기준을 세우고 결과를 평가한다. -위의 추론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한다.
3. 행동한다.	-효과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연마한다. -실제 상황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행동을 반성한다.	-행동을 실행한 후 반성한다. -세워 놓은 기준을 보고 목표와 가치를 평가한다. -미래에 사용하기 위한 개념을 형성하고 일반화한다.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 -새로운 문제를 정의한다.

보를 해석한다. 셋째, 설정된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이나 방법들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네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차후 결과와 파급 효과에 대해 고려한다.

다섯째, 행동에 대한 판단과 위에 언급한 여러 이성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최선의 결론에 도달한다.

이상과 같이 실천적 추론은 여러 단계가 있지만, 과학적 연구와는 달리 정해진 절차를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며 유동적이다. 실천적 추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최선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요구되는 문제 해결 과정의 한 부분으로 실천적 추론은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기술이다. 비판적 사고 기술은 정보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여러가지 대안을 판단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창조적 사고 기술은 결과를 상상하고 대안을 개념화하며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은 가족들과 관련된 가정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해야 하는 가정과 교육의 성격이나 목표에 적합한 수업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도난희, 1997).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은 보편적인 수업 방법과는 달리 정해진 절차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동적인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실천적 문제 해결 수업방법에 적합한 모둠별 토의 협동학습 수업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Thelen(이문숙, 1996, 재인용)은 토의 협동학습의 방법에서 오는 교육적 의의를 (1)심리적으로 편안하여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감정의 표현도 자유롭다 (2)참가의 기회가 많으며 따라서 사회적 평가를 받는 일도 많게 되어 학습의 동기도 제고된다 (3)개인이 중시되어 개인의 책임감이 증대된다 (4)자발적인 자기 결정적 지도적 행위가 양성된다 (5)집단을 지도해 나가는데 용이하다라고 제시하였다. 김사웅(1991)은 토의학습의 결과에서 오는 교육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태도: (2)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태도: (3)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용을 베푸는 태도:

(4)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하는 태도: (5)민주적인 태도: (6)타인의 의견을 듣는 가운데, 자기의 인식을 확대 심화 발전하는 연구적인 태도가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박성익(1985)은 문제해결 학습과제를 학습시킬 때, 협동학습전략을 적용하면 학생들은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동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 다른 학생들과 의사를 교환하는 방법 등의 인지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1997, 김수현, 재인용). 이는 학생들이 모둠별 토의 협동학습을 통하여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게 되므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진행시키는데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 남녀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가정과 교수 내용과 방법

여러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남녀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교수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가 명확히 부각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이현숙, 1995). 사회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려면,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반성적으로 추론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유지연, 1996). 가정과 교육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교육으로, 인간이 주체가 되어 시대적 상황에 적절한 바른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교수방법과 학습자료가 필요하다.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이 높을 때 학습 효과는 높아진다. 특히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기가 시험 성적이나 칭찬, 입시 준비와 같은 외재적 동기가 아닌, 학습 내용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거나 또는 학습 내용이 학습자 자신의 사고력 발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과 같은 내재적인 동기일 때 교육의 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또한 남현주(1996), 이시경(1996), 김수현(1997)은 가정과교육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지도하는데는 강의 위주의 수업 방법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가정교과는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 능력, 의사소통 능력, 표현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므로 이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은 토의학습, 탐구학습, 협동학습, 발표식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임은정(1994)은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되려면, 교사 강의중심의 수업방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교사와 학생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습 내용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학습 자료 이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야 한다. 현재의 고등학생들은 영상매체 세대이기 때문에 특히 영상매체를 이용한 학습자료 준비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외에 다양한 학습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셋째, 지식의 습득보다는 사고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실천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김선희(1994), 강신웅(1995), 류호섭(1995)은 지나친 지식위주의 학습내용과 획일적 수업방법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문제 해결 능력을 도외시한 단순한 암기 위주의 교육과 창의력을 키울 수 없는 수업현장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김옥선, 1996, 재인용). 가정과 교육은 단순한 의식 구조만을 요구하는 단편적인 지식의 전달에서 탈피하여 총괄적인 의식 개발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가정과 교육의 교과 과정은 학문 위주가 아닌 문제 중심으로 꾸며져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교사는 이러한 지식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남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성의 균형이 잡힌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Vincenti(1981)는 '남자는 가족의 주요 구성원이며 가정이나 가족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과 교육은 여자는 물론 남자에게 더 많은 관심이 돌려져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구성원 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임애용(1994)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절대적으로(91.8%) 높았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남녀 학생 모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내용과 교수법을 이용해야 한다. 김승현(1995)이 가정과 수업을 받은 중학생을 통한 연구에 의하면 가정교과의 남녀 공통이수에 대한 인식도는 학생, 학부모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학생은 '배울 필요가 있다'에 85.3%, 학부모는 94.9%가 반응해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정과 교육의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모두 '가정은 가족 공동체이므로 가족 모두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필요하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더라도 가정과 교육은 성의 구별없이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성교육이 강화된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성 범죄 증가는 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성에 대한 허황되고 과장된 지식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가정과목에서 남녀 모두에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까지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주장이 있어 왔지만 의도적으로 감추고 외면해 온 것이 현재의 학교 성교육 실태이다. 이제는 성에 대한 지식, 정보 등을 가정과목에서 공식적인 교육내용으로 삼아 더 이상 성의 왜곡 현상을 막는데 가정과목이 일조를 해야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단일집단 사후측정 방안으로서 실험처치인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 X를 행하고, 사후검사 O를 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계는 다

음과 같다.

X	O
---	---

X =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

O = 사후 테스트 (수업의 효과에 대한 인식)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은 (1) 실천적 문제를 정의한다. (2) 개발된 토론 자료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3) 협동학습 모둠별로 토론한다. (4) 교사가 수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실험 처리는 두 반에 행해졌으며, 한 반에 일곱 모둠을 만들었다. 한 모둠은 7-8명씩으로 모둠의 구성은 1997년 3월 학기초에 성적, 성별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임의의 사에 맡기어 편성하였다. 사후 검사로는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의 영향 및 문제점에 관한 견해를 파악하였다. 사후테스트는 14주 동안의 실험이 끝난 다음주인 1997년 6월 30일에서 7월 5일 사이 오후 자율학습시간에 행하여졌다. 이는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개방형 질문에 쓰여져 있는 문항을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읽어주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학생들이 문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자

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록하게 하였다.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은 1997년 3월 10일 부터 6월 28일 까지 각 주에 따라 다음 <표 2>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지도안은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가정 교과서를 기초 틀로하여 미국 Ohio주의 가정과 수업지도안인 Family Relation Resource Guide, Parenting Resource Guide, Personal Development Resource Guide (1993)와, 도난희(1997)의 수업지도안 내용과, 장혜경(1994)의 학습지도안 내용, 이현숙(1995)의 가정과 교과서 개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C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두 개 학급 101명(남학생 67명, 여학생 34명)이다. 표집방법은 편의 표집법으로 이 표집법을 사용한 이유는 실천적 문제 중심 교수법을 남녀 고등학생들에게 직접 실시해야 하는 데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가정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를 이 학교외에는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조사도구 및 절차

본 조사도구는 장경례(1994)와 신태진(1995)의 연구문헌을 토대로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후 가정교육학 전문가 한 명으로 부터 내용 타당도를 테스트받고, 남녀 고등학생 15명을 면접하여 예비조사 하였다. 예비조사 후에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수정, 삭제, 보완하여 최종 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내용 분석으로 처리되었다. 내용 분석은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11문항)이 친밀감 형성, 발표력 향상, 사고력 신장, 문제 해결력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과, 이 수업법의 문제점, 학업

<표 2>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수업 내용

기간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 내용
1주 (3.10 - 3.15)	가족이란?
2주 (3.17 - 3.22)	이성교제
3주 (3.24 - 3.29)	배우자 선택
4주 (3.31 - 4. 4)	결혼
5주 (4. 7 - 4.12)	가족법
6주 (4.14 - 4.19)	여성과 남성의 생리
7주 (4.21 - 4.26)	부모됨의 의미
8주 (4.28 - 5. 3)	임신과 낙태
9주 (5.12 - 5.17)	임신과 낙태
10주 (5.19 - 5.24)	출산
11주 (5.26 - 5.31)	수태 조절법
12주 (6. 9 - 6.14)	아동 발달 단계
13주 (6.16 - 6.21)	가족 생활 주기
14주 (6.23 - 6.28)	음식 만들기

성취도와와의 관계,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에 대한 이전의 경험 여부, 첫 시간을 수행한 후의 느낌, 한 학기동안 수업을 하고난 후의 느낌, 이 수업에 대해서 스스로 내리는 평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행하여졌다. 내용 분석법에 의하여 질문지에 쓴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중요하게 비슷한 특징이 있는 개념을 범주화하였다. 일단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그 후 카테고리를 정하였고, 연구자는 입력된 자료를 카테고리에 넣었다. 그 후 정확하게 자료들이 범주화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급우간의 친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급우간의 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대답의 비슷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도움이 된다는 대답이 93.1%(94명), 도움이 안되었다는 학생이 6.9%(7명)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는 이유로는 “솔직한 의견 교환속에서 친해진다” 40.6%(41명), “서로의 장·단점, 가치관, 성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 14.9%(15명),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도움이 되었다” 10.9%(11명), “친해지는 시간

을 단축시켜 주었다” 9.9%(10명) 등으로 대답하였고, 도움이 안되었다는 이유로는 “이미 친해져 있었다” 2.0%(2명), “지나친 의견대립 때문에 도움이 안되었다” 2.0%(2명), “그저 그렇다” 2.0%(2명) 등으로 답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을 분석하면, 학생들이 실천적 토론을 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주제에 대한 모둠별 토론을 진행하면서, 서로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발표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발표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의 비슷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가 69.3%(70명), 도움이 안되었다 30.7%(31명)로 나타났다. 도움이 된 이유로는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발표를 해야 하니까” 47.5%(48명), “말을 많이 해서 공포심이 없어졌다” 10.9%(11명),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5.9%(6명) 등의 대답이 있었고, 도움이 안된 이유로는 “용기가 부족해서 발표를 많이 못했다” 13.9%(14

<표 3>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급우간의 친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N = 101)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안 되었다.			
이	유	명수	백분율	이	유	명수	백분율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에	41	40.6		이미 친해져 있었기에	2	2.0
	서로의 장단점과 가치관 성격 등을 빨리 파악했기에	15	14.9		그저 그렇기에	2	2.0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였기에	11	10.9		지나친 의견대립으로 더 나빠졌기에	2	2.0
	친해지는 시간이 단축되었기에	10	9.9		생각해 보지 않았기에	1	0.9
	좋은 점수 받으려면 협동해야 하니까	9	8.9		계	7	6.9
	기 타(마주 보고 앉으니까, 이성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되었기에)	8	7.9				
	계	94	93.1				

〈표 4〉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발표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N = 101)

발표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발표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었다			
이	유	명수	백분율	이	유	명수	백분율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발표해야 하니까		48	47.5	용기가 부족해서 발표를 많이 못했기에		14	13.9
말을하는 중 공포심이 많이 없어졌기에		11	10.9	귀찮고 싫었기에		12	11.9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터득했기에		6	5.9	많은 토론을 할 시간이 부족했기에		1	1.0
발표를 많이 하려고 스스로 노력했기에		5	5.0	별 변화가 없었기에		4	3.9
계		70	69.3	계		31	30.7

〈표 5〉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사고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N = 101)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안 되었다			
이	유	명수	백분율	이	유	명수	백분율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배웠기에(창의적)		44	43.5	이시간에만 이렇다고 무슨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하였기에		3	3.0
깊고 논리적으로 사고했기에		14	13.9				
독단적이지 않고 개방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웠기에		9	8.9	내 의견이 묵살당했기에		2	2.0
생각하는 태도가 진지하고 능동적으로 변했기에		9	8.9	생각하는 것이 귀찮았기에		2	2.0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법을 배웠기에		7	6.9	잘 모르겠다.		11	10.9
계		83	82.1	계		18	17.9

명), “말하기가 귀찮고 싫었다” 11.9%(12명), “많은 토론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 1.0%(1명) 등의 결과가 나왔다.

이 질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면, 조원들은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발표하도록 격려하고, 또한 의무적으로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주 발표하다 보면 남 앞에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대한 공포심이 줄어들어서 발표하는데 자신감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 미치는 영향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정리해 보면 〈표 5〉와 같다.

도움이 되었다 82.1%(83명), 도움이 안되었다 7.0%(7명), 잘모르겠다 10.9%(11명)으로 조사되었다.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이유로는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배웠다” 43.5%(44명), “논리적이고 깊게 사고하게 되었다” 13.9%(14명), “독단적 사고에서 벗어나 개방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 8.9%(9명) 등으로 나타났고, 도움이 안된 이유로는 “이 시간에만 이렇다고 도움이 되나?” 3.0%(3명), “내 의견이 자주 묵살을 당해서” 2.0%(2명), “생각하는 것이 귀찮다” 2.0%(2명)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을 분석하면, 수업 중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에서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신문·비디오·프린트물 등의 학습자료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얻었으며,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논리적이고 깊게 사고하는데 도움이 된것으로 해석된다.

〈표 6〉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N = 101)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안 되었다					
이	유	명수	백분율	이	유	명수	백분율		
성인이 되어서 도움이 될 것이기에		20	19.8	잘 모르겠다		13	12.8		
타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기에		17	16.8						
깊게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가치판단에 영향을 주기에		15	14.8		내가 적극적으로질 못해서			4	4.0
					내 문제하고는 거리가 멀기에			4	4.0
성지식 등 많은 걸 알게 되어서		13	12.8		기타			3	3.0
기타		12	12.0						
계		77	76.2	계		24	23.8		

〈표 7〉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N = 101)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다			
이	유	명수	백분율	이	유	명수	백분율
흥미로우니까 수업에 관심을 갖게 되기에		33	32.7	성적보다는 다른면에 도움이 되기에		22	21.7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우지 않아도 기억에 남기에		17	16.8	강의식 수업이 더 좋다고 생각되기에		5	4.9
	수업형식이 어떤 방법이든 배우는 것 같기에				교과서적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 수업 이므로 성적과는 무관하기에		4
		3	3.0	수능시험에 안 나오니까		4	4.0
계		53	52.3	기타		4	4.0
잘 모르겠다.		9	8.9	계		39	38.6

4.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본인의 문제 해결력에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한 대답의 비슷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6〉와 같다.

도움이 되었다 76.2%(77명), 도움이 안되었다 23.8%(24명)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었다고 대

답한 이유로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성인이 되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19.8%(20명), “타인의 의견을 들으므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서” 16.8%(17명), “깊게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나의 가치 판단력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14.8%(15명) 등으로 이유를 들었고, 도움이 안되었다는 대답으로는 “잘 모르겠다” 12.8%(13명), “내가 적극적으로질 못했다” 4.0%(4명), “내 문제하고는 거리가 멀다” 4.0%(4명)

등으로 대답되었다.

이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을 분석하면, 이 수업의 목적이 삶에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그 초점이 있다. 그러므로 실천적 문제 질문인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나(What Should I Do)’ 형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었으므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온것으로 분석된다.

5.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대답의 비슷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있다 52.3%(53명), 관계 없다 38.6%(39명), 잘 모르겠다 8.9%(9명)으로 나타났

다. 관계가 있는 이유로는 “흥미로우니까 수업에 관심을 갖게 된다” 32.7%(33명),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우지 않아도 기억이 된다” 16.8%(17명), “수업형식이 어떻든 배우는 것은 같으니까” 3.0%(3명)의 대답이다.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는 “성적보다는 다른 면에 도움이 된다” 21.7%(22명) “교과서식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 수업이므로” 4.0%(4명) 등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을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학업 성취도 평가방법이 ‘지필고사’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연구학교가 있는 경기도 가정과목에 대한 평가지침은 지필점수 80%, 실기점수 20% 이다), 문제 자체도 다른 가정교사와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교과서위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대답이 상당수 나온것으로 분석된다.

6.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의 문제점

“실천적 문제 중심 모듈별학습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대답의 비슷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으로 “참여를 잘 안하는 학생이 있다” 19.8%(20명), “공간이 너무 좁아서 시끄럽고, 옆 반에 방해가 된다” 17.8%(18명), “시간이 부족하다” 11.9%(12명), “책상 옮기는 것이 귀찮다” 6.9%(7명) 등의 응답이 있었으며, “잘모르겠다”가

14.9%(15명), “문제점이 없다”가 16.8%(17명)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을 분석하면, 현재까지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에 익숙해있는 일부의 학생들에게는 갑자기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귀찮고 어색하기 때문에 수업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 참여 수업에 익숙해 지고, 교사의 적극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반면, 이런 수업은 운영상의 문제점보다 더 심각한 현상을 나타낸 것이 물리적 여건에 있다. 즉, 한 반에 50여명인 과밀 학생수와, 매 가정 시간마다 모여 있기 위해서 책상을 옮겨야 한다는 점과, 격렬한 논쟁을 하지 않더라도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다 보면 열악한 교실 환경 때문에 옆 반에 피해가 있다는 것이 커다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7.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견해 및 자체 평가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에서 이용하는 모듈별 협동학습을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의 비슷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긴장·어색·난감했다” 42.5%(43명), “흥미롭고·

<표 9> 실천적 문제 중심 첫 수업의 느낌

(N = 101)

첫 수업의 느낌은?	명 수	백분율
긴장되고, 어색하고, 난감했다.	43	42.5
흥미롭고 신선했다.	16	15.8
별 느낌이 없었다.	13	12.9
이런 귀찮은 수업을 왜 하나하고 생각했다(인문계 고2가 이런 수업을 하다니?)	11	10.9
말하기가 귀찮았다(그냥 선생님이 교과서대로 수업하지 왜?).	6	5.9
어수선하고 토론이 미숙했다.	5	5.0
책상 옮기는 것이 귀찮았다.	4	4.0
기 타	3	3.0
계	101	100.0

<표 8>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의 문제점

(N = 101)

내 용	명 수	백분율
조원 중 참여를 잘 안하는 학생이 있다.	20	19.8
공간이 너무 좁아서 시끄럽고 옆 반에 방해가 된다.	18	17.8
분량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	12	11.9
매 시간 책상 옮기는 것이 귀찮다.	7	6.9
기 타	12	11.9
문제점이 없다	17	16.8
잘 모르겠다.	15	14.9
계	101	100.0

신선했다" 15.8%(16명), "별 느낌 없었다" 12.9%(13명), "이런 귀찮은 수업을 왜 하나?" 10.9%(11명)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학생이 84.2%(85명)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답을 분석하면, 처음인 학생이 23명, 전에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이 78명으로 모듈별 협동학습에 대해 낯설지는 않았지만, 그 경험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협동학습만으로 이루어진 수업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회'나 '윤리' 시간에 한 학기에 한 두 번 정도의 경험이란 것이 면접에서 밝혀졌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협동학습으로 이루어진 수업을 경험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협동학습을 이용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수행 본 현재의 느낌은?"에 대한 대답의 비슷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0>와 같다.

"친구 사귀는데 도움이 되었다" 14.4%(23명), "발표력이 향상되었다" 12.5%(20명), "타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0.6%(17명), "논리적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 9.4%(15명) 등으로 긍정적인 대답이 87.5%(140명)이었고, "시간마다 자리 이동하는 것이 귀찮다" 3.1%(5명), "참여도가 낮은 조원 때문에 짜증이 난다" 3.1%(5명), "주제가 재미없고 소란스럽다" 2.5%(4명) 등으로 부정적인

대답이 12.5%(20명)였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하면, 처음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생각을 읽을 수 있었으며, 학생주도의 능동적 참여 수업이 타인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공동사회에서, 개인적인 발달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가정과목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교수법이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수행하고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는?"에 대한 대답의 비슷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1> 같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44.6%(45명),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다" 35.6%(36명), "스스로에게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6.9%(7명),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6.9%(7명)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답변으로는 "가치관이 많이 변했다" "우리 팀에 방해만 된 것 같다" 등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하면, 아직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주도수업에 익숙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수업방법과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열심히 참여했다는 평가와, 스스로 미흡함을 느끼는 평가로 양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스로 판단하는 수업참여도 점수는

<표 10>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한 학기 수행 본 현재의 느낌

(N = 160, 다답)

긍정적 대답				부정적 대답			
이	유	명수	백분율	이	유	명수	백분율
친구 사귀는데 도움이 되었다.		23	14.4	시간마다 자리 이동이 귀찮다.		5	3.1
발표력이 향상되었다		20	12.5	참여도가 낮은 조원들 때문에 짜증이 난다.		5	3.1
타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17	10.6	주제가 재미없고, 다소 소란하다.		4	2.5
논리적 사고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		15	9.4	공동 책임이 싫다		2	1.3
교과서에 없애지지 않는 자유로움이 좋다.		13	8.1	과제(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싫다.		2	1.3
수업이 재미있다		13	8.1	점수화 하는 것이 싫다		1	0.6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12	7.5	어색해서 싫다.		1	0.6
내 주도하의 학습이다. (수업의 능동성)		11	6.9				
기타(자신감 형성, 이성을 사귄 수 있는 기회, 협동심이 생김 등)		16	10.0				
계		140	87.5	계		20	12.5

〈표 11〉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수행한 후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 (N = 101)

내 용	명 수	백분율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45	44.6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36	35.6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7	6.9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나에 대한 재평가)	7	6.9
기 타	6	6.0
계	101	100.0

〈표 12〉 스스로 판단하는 수업참여도 점수 분표 (N = 101)

점수	명수	총점	점수	명수	총점
10	3	30	6	15	90
9	14	126	5	4	20
8	33	264	3	1	3
7	29	203	2	2	4

〈표 12〉과 같이 10점 만점에 평균 7.3점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방법으로 가정과 수업을 실시한 후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의 효과 및 문제점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1997년 1학기동안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법을 적용하여 인간발달 영역과 음식만들기 수업을 실시한 후 얻어진 결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급우간 친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솔직한 의견 교환과, 의견 대립 속에서 더 친밀해졌다.” “서로의 장·단점과, 가치관, 성격 등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이 93.1%로 나타났다. 이는 실천적 추론을 위한 질문에 대한 답

을 찾으려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때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발표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도움이 되었다가 69.3%, 도움이 안되었다가 30.7%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모둠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발표해야 하는 점과, 발표를 자주하다 보면 발표에 대한 공포심이 줄어들어서 자신감을 키워주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세째,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대답이 82.1%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모둠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내 의견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도 받아들여지게 되며, 또한 여러 학습자료(신문,비디오테이프,프린트물)를 통해서 깊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네째,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에 도움이 되었다(76.2%)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가정과목 자체가 인간발달과 소비자 문제등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학기에 공부한 인간발달 영역은 출생부터 노인문제까지 우리의 삶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나’ 하는 실천적 추론 형식으로 진행된 수업이었으므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것으로 풀이된다.

다섯째,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이 52.3%, 부정적인 대답이 38.6%, 잘모르겠다 8.9%로 약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업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외우지 않아도 기억에 남는다.”는 긍정적인 대답이 있는 반면, “발표력,사고력 증진 등에는 도움이 되지만 성적과는 무관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 아직까지 현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가 반드시 지필고사를 치르게 되어 있는 현실에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된다.

여섯째,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의 문제점으로는 “참여를 잘 안하는 학생이 있다” “공간(교실)이 너무 좁아서 시끄럽고 옆 반에 방해가 된다” 등이 지적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에 길들여져 있는 일부 학생에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 자체가 귀찮고 어색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담당교사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 유도과 조원들의 격려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열악한 교실환경과 구조 때문에 옆 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교실환경 같은 물리적 조건의 해결 방법은 원탁식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 확보와 한 반의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일곱째, 학생들이 이전에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었으며,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처음 시행했을 때는 “긴장, 어색, 난감했다” “이런 귀찮은 수업을 왜 하나?” 등의 부정적인 시각이 84.2%였으나 한 학기 동안 수행한 다음의 느낌은 “친구 사귀는데 도움이 되었다.” “발표력이 향상되었다” “타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등 긍정적인 대답이 87.5%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 모형이 가정과목에 알맞는 교수법이란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해 본다.

첫째, 가정 교과내용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실시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직 국내에는 없지만 외국것이라도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수업에 대한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교육부(1995). *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 과정 해설(Ⅰ)*.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2) 김사웅(1991). 인간중심 교육을 겨냥한 토의학습. *교육관리기술* 6, 148-156.
- 3) 김수현(1997).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의 학습지도안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승현(1995). 제 6차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도와 학습만족도 및 주관적 학습효과 연구 -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옥선(1996). 가정과교육을 위한 「열린교육」의 적용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남현주(1996). 집단 탐구 모형을 적용한 중학교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도난희(1997). 실천문제 해결 수업모형을 적용한 중학교 가정과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의 수업지도안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성화경 외(1995). *고등학교 가정*. 서울: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9) 신태진(1995). 열린교육의 원리와 그 교육적 가치.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신현자(1991). 가정교과 학습을 통한 남중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 3(1), 58
- 11) 유지연(1996). 실천적 문제 중심의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식생활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유하림(1996). 중학교 가정과 교육목표의 필요도에 대한 인식.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이기훈(1989).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문제점. *대인가정학회지*, 27(4), 255-258.
- 14) 이문숙(1996). 가족관계 영역의 토의학습 모형을 적용한 수업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시경(1996). 역할놀이 수업 모형을 적용한 고등학교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연구: 가족 관계 영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이현숙(1995). 제 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 바람직한 가정과 교과서 개발을 위한 내용구성 연구 -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7) 임애용(1994).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의 필요도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임은정(1994).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방향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장경례(1994). '열린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20) 장혜경(1994). Marjorie M.Brown의 가정과 교과과정 모형에 근거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의 학습지도안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채정현(1996). 가정과 교육과정 모형에 대한 선호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1), 33-49
- 22) Baldwin, E.E.(1984). The nature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secondary schoo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rvallis: Oregon State University.
- 23) Bobbitt, N.(1986). Summary: Approaches to curriculum development. In AHEA, Home Economics concepts: A base for curriculum development, Alexandria, VA., 43-47.
- 24) Brown, M.M. & Paolucci, B.(1979). Home Economics: A definition. Washingt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25) Brown, M.M.(1978). A conceptual scheme and decision-rules for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ent. Madison, Wisconsin: The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 26) Brown, M.M.(1980). What is Home Economics Edu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27) Chae, J.H.(1995). Assessment of Korean secondary school Home Economics curriculum with implication for chan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 28) Edersheim, M.A.(1988). The contribution of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and other factors to the decision making level of tenth grade home economics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 29) Jenkins-Vulgamore, V.J.(1991). The relationship of home economics instruction and other factors on early adolescents' decision making skill levels. Unpublished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 30) Johnson, D.W., & Johnson, R.T.(1989). Cooperation and competition: Theory and research. Edina, MN: Interaction Book Company.
- 31) Kister, J., Laurenson, S., & Boggs, H.(1993). Family Relation resource guide: A resource for teaching the family relation core course area of Ohio's work and family life program. Columbus, Ohio: Ohio Department of Education.
- 32) Kister, J., Laurenson, S., & Boggs, H.(1993). Parenting resource guide: A resource for teaching the parenting core course area of Ohio's work and family life program. Columbus, Ohio: Ohio Department of Education.
- 33) Kister, J., Laurenson, S., & Boggs, H.(1993). Personal Development resource guide: A resource for teaching the personal development core course area of Ohio's work and family life program. Columbus, Ohio: Ohio Department of Education.
- 34) Laster, J.F.(1982). Practical action teaching model. Journal of Home Economics, 74(3) 41-44.
- 35) Laster, J.F.(1987). Problem Solving: Definition and meaning. In R.G.Thomas(Ed.) Higher order thinking: Definition, meaning and instructional approaches(pp.35-43) Washington,D.C.: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 36) Manifold, S.C.(1984). The development of a decision making skill instrument for vocational home economics practical problems. Unpublished

- mater's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 37) Martin, J.L.(1988). The effects of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on 10th grade students' decision making skill levels. Unpublished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 38) Thomas, R.G.(1986). Alternative views of Home Economics: Implication for K-12 Home Economics curriculum. The Journal of vocational Home Economics Education 4(2), 162-188.
- 39) Vincenti, V.B.(1981) A history of the philosophy home econom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